학생독립운동 84주년 기념탑 참배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3일 최승호(왼쪽)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부회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광주시 북구 문흥동 광주자연과학고에서 열린 제84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탑을 참배한 뒤 나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민증 위·변조…유흥업소 가는 10代들

광주경찰, 지난해 68건 적발 … 수능 전후 강력 단속

인터넷선 여권에서 각종 자격증까지 위조 광고 넘쳐

인터넷에서 신분증 등 각종 문서 위·변조 방법이 공공연하게 떠도는가 하면, 신분증을 위·변조해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변조해 사용했다가 적발된 청소년은 지난 2011년 37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적발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을 드나들다 적발된 청소년들이 대부분으로, 죄의식 없이 호기심에 위·변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수능시험을 전후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를 마음대로 출입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최근 각 경찰서에 접객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온라인상 신분증·공문서 위·변조 행위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위조'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각종 신분증·자격증·증명서 위·변조 방법, 가격 등을 안내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이 쏟아진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토익 증명서 뿐 아니라 고등·대학교 졸업증명서, 중개사자격증, 한식조리사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각종 공문서나 신분증을 위조해줄 뿐 아니라 모든 문서에 대해 전산등록까지 해 안전하고 후불제라 믿을 수 있다는 광고 글도 버젓이 게재돼 있는 실정이다.

이메일로 '민증 3개 구합니다. 가격과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문의한 지 10분 만에 '연락처랑 통화 가능 시간 남겨 주시면 통화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이 왔고 전화 통화에서는 "주민등록증 한 장당 30만원, 선불금 명목으로 10만원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를 당해도 범죄 행위라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사기 행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위·변조 행위가 죄의식 없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정 감사에서도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신분증 티 안 나게 고치는 방법(변조), 자신의 신분증을 분실 신고해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은 뒤 기존 것을 '위조' 해 사용하는 법, 위조 사이트 대행 업자와의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변조한 혐의로 적발된 청소년들은 2010년 1507명에서 2011년 1503명, 2012년 2399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목포대교서 또…

뺑소니 도주 20대 경찰에 쫓기다 투신…숨져

'자살대교' 오명 … 감시원 배치 등에도 문제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자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포대교 한 가운데서 바다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께 목포시 상동 H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김모(28)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로 길을 건너던 김모(41)씨를 친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김씨가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해자 김씨는 이 날 밤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다.

사고 후 운전자 김씨는 구호조치도 없이 이면도로를 타고 5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용해동 옛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과 마주쳤지만,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도주했다.

도심에서 150㎞ 이상의 속력을 내며 약 5㎞ 가량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김씨는 목포대교(목포~영암방면 2㎞ 부근)에 이르러 차량을 멈춘 후 스스로 바다에 뛰어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보다 40여m 앞선 데다, 김씨가 너무 빨리 행동해 막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투신 후 30여분이 지난 밤 11시45분께 목포해경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후였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가 이날 밤 10시께 대리기사를 불러 무안에 있는 집에 도착한 후 1시간 정도 뒤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수차례 자살사건이 발생하면서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쓴 목포대교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목포시와 경찰 등이 추진하는 야간 차량 순찰 및 감시원 배치, CC(폐쇄회로)-TV 설치 등 예방 대책에 대한 효용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성추문 검사 항소심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1) 전 검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씨는 작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연합뉴스

"선배 의사에 성폭행 당했다"

광주서 여성 수련의 신고 … 경찰 수사 나서

선배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2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A 병원 여성 수련의 B씨가 지난 27일 새벽 선배 의사인 C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B씨는 경찰에서 당일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C씨와 포도주를 마시다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혈액과 체액 등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성폭행 피해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임용비리 의혹 폭로 자살' 시간강사 유족

지도교수·조선대 상대 5억 손배소

2010년 논문 대필과 교수 임용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자살한 시간강사 〈광주일보 2010년 5월 27일자 1·6면〉 서모(당시 45)씨의 유족이 지도교수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에 따르면 서씨의 유족은 최근 지도교수와 조선대를 상대로 5억원을, 조선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첫 재판은 5일 오후 열린다.

서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 대필, 교수 임용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서 서씨는 "지도교수와 쓴 논문 54편은 모두 내가 썼다",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000만원, 3억원", "6000만원, 1억원 등 두 번 (채용비리)제의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책을 바라는 내용을 넣었다.

경찰과 대학 측은 당시 서씨가 주장한 논문대필, 채용비리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00년 묵은 진안 백운산 산삼 "심봤다"

30년 경력의 심마니가 수령 110년을 비롯한 산삼 10여 뿌리를 캐 화제다. 〈사진〉

3일 박기범(52)씨는 지난달 20일 진안군 백운산에서 약 12~110년 된 천종산삼(天種山蔘·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산삼) 10여 뿌리를 캤다고 광주일보에 밝혔다. 평소 약초 캐는 일을 하는 박씨는 백운산(1279m) 8부능선 골짜기에서 산삼군락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박씨가 캔 산삼 중 가장 큰 것은 수령 110년으로 길이 49.2㎝·두께 1.5㎝·무게 13.2g에 달한다. 박씨가 자원식물연구 전문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2~110년생 가족삼으로 모양이 다양해 상당한 약성이 기대되는 삼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씨는 "심마니 30년 인생 중 이렇게 큰 산삼을 캐본 것은 처음이다"며 "좋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락처(010-9467-6976).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얼굴 닮아" 밥먹으러 온 손님 뺨때려

쌍나팔

○…음식을 주문하고 말도 없이 사라진 남성과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애꿎은 손님의 뺨을 때린 40대 음식점 업주가 경찰 서행.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9)씨는 지난 1일 밤 10시1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 정모(53)씨를 보고 다짜고짜 뺨을 두 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에서 정씨는 "10월 중순 메기 매운탕 15인분을 주문하고 말도 없이 사라진 손님이 있어 수십만원의 손해가 났는데, 정씨와 너무 닮아서 순간 착각했다"며 뒤늦은 후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 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